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2:19-30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1-11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12)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하나님이 제일 세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찬491/새434장), 주만 바라볼찌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이 믿음 더욱 굳세라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빨간 지붕 Red Roof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미국 땅이 넓고 넓다지만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을 것같이 펼쳐지는 지평선과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한국 사람 다 데려다 놓아도 충분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다는 생각 다음에는 그 넓은 들판에 여기저기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검은 소, 블랙 앵거스들을 보면서, '만족'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 소라면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이 내 밥상이고, 싱싱하게 자란 들풀들이 다 내 밥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옆에 있는 다른 소들보다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오늘은 무엇을 먹으며,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이 기억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1-32)

도심을 벗어나 넓은 들판을 보며 "와~"하며 감탄했지만, 끝도 없는 들판을 5분 이상 계속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나머지 지루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미한 색깔의 들판을 수 시간 달리다 보니 졸음에 하품까지 나올 즈음에 빨간 지붕의 건물이 번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을 발견한 듯 빨간 지붕 건물이 궁금해졌습니다. 점점 다가가며 그 빨간 지붕 건물은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건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노톤의 들판을 수 시간 달리다 나타난 빨간 지붕은 통명스러운 얼굴에 미소를 띄게 하는 호의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허허벌판에 한 점 들어온 빨간 지붕은 이 들판에 주인이 있다는 표시이며, 그 주인이 지루한 길을 한없이 달리는 졸음 운전자들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표시였습니다.

교회 앞에 자전거 도로를 막고 하수도 공사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많은 사람이 교회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사로 인해 돌아가면서 교회 주차장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 파묻혀 다소곳이 앉아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이 달리는 속도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겠지만, 이제는 '교회' 주차장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문득 우리 교회가 지루한 허허벌판 같은 세상에 빨간 지붕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생각 없던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네"라면서 빨간 지붕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신선함과 친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보행하는 사람들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고 가는 빨간 지붕의 쉼터 공간이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런 거 하나?"라고 묻는다면,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품나게 답해 보고 싶습니다.

America's land is great and wide. Looking at endless stretches of horizon and vast land while driving, I think it's even enough to bring over all of population from Korea. After the vastness of land, you see black cows, black angus, dotted here and there, grazing peacefully. A thought of satisfaction crosses my mind. If I was that cow, this endless field is my dining table and fresh green grass is my dinner. I think I would automatically confess "I shall not want". Nothing is lacking, why would I fight with the other cows for food? Why would I worry about what I should eat today or tomorrow? I am reminded of Jesus' sermon on the mount.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Matt 6:31-32)

Looking at the wide field of countryside, we may respond with "Wow~", but no one would stand looking at this for more than 5 minutes. We get used to it quickly and then become bored even. Driving several hours through plain fields, just about the time becoming drowsy and yawning, a red roof building suddenly comes into my view. I became curious about this red roof building as if I had discovered fresh water in the middle of desert. As we got closer, we realized this red roof building was not a house but a storage building. After driving through monotonous field for hours, this red roof was like a smile on a blunt face. In this vast field, with no one in view, this red roof provided as a sign that the land has owner. It was a warm welcome to sleepy drivers driving on this boring road.

In front of our church, there is a sewage construction going for months, blocking a bike trail. Many bikers ride through this trail, unaware that a church exists. With the construction, a detour was made through our parking lot. While their riding, they may not have been aware of a church building hidden in natural surroundings. Now they are passing through our 'church' parking lot. I thought about how nice it would be if our church can be like the red roof building in the world that is boring and empty. They may have, without much thought discovered "there's a church here", like a red roof building. I would like them to experience freshness and kindness from the discovery. After construction, I am thinking about putting a place of rest, a red roof rest area for bikers and hikers. If someone on trail asks "Why do you do this?", I would answer with pride "We are only responding to God's love that we have received freely."

주일설교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제12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빌 2:19-30)

1. 빌립보 교회 안에 심상치 않은 분열의 조짐에 바울은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2. 두 친구의 공통점을 찾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1) _____ (22, 25절, 참고/ 살전 3:2-3, 딤후 4:9, 13)

2) _____ (20, 26절, 참고/ 잠 25:25)

3) _____ (21, 30절)

3.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신 친구,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 적용찬양: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찬491/새434장), 주만 바라볼찌라

적용하기



재정/계수사역

온 정성 다해 감사함으로



일주일 중 나에게 가장 바쁜 날, 주일은 재정실이 가장 북적거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늘 긴장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계수팀에서 일주일 동안 우편으로 보내주신 현금들과 교회로 직접 내신 현금들을 두 번에 걸쳐 계산기로 찍고 합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계수되고, 재정실에서는 일일이 교적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 현금들을 컴퓨터에 기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두 곳에서 나오는 합산의 기록이 일치되어야 재정실 일이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1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모든 성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게 가장 긴장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내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현금을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실은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지켜나가는 건강한 베델교회가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현진 간사



팬데믹으로 힘든 가운데 중요한 살림을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재오픈되기 전, 현금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과 우편으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계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과 같이 마음에 남음이 없이 행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장님을 비롯한 두 권사님과 두 집사님이 계셔서 은혜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시는 현금들, 그것을 계수

하고 늦게 끝나는 시간인데도 서로를 격려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지연 권사

매 주일 귀한 말씀을 듣고 섬김을 받으며, 저도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현금을 통하여 섬기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계수팀에 동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일, 선교, 장학, 십일조 등 여러 현금을 작성하여 드리면 그 현금의 쓰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섬김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뽀뽀뽀 하지만 정성을 모아 쓴 아이들의 현금 봉투, 어르신들의 정성이 담긴 감사, 간절한 기도 제목 등...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신 현금이 계수부에 모입니다. 그분들의 정성을 모은 현금을 계수하면서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류되고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담긴 현금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표현이라 생각되며 그 표현을 함께 읽어 내려가는 계수팀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황영미 권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현금을 계수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섬기는 일 중 하나라 생각하고 감



사하고 영광된 마음으로 매주 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계수팀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동역자로서 서로 알아가며 세워주며 매주 재미있게 섬기고 있어서 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사역에 익숙해져 갑니다. 다음에는 어떤 사역에 쓰임 받을지 기대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김재훈 집사

베델 45주년 특집 (3)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운 곳

2003년 이민 온 첫째, 고모(이영주 권사)의 인도로 베델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지금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채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타와 드럼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던 감동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Grace 전도사님이 "God is Good!" 하고 외치면 우리는 아주 큰 소리로 "All the time!" 하고 응답하곤 했습니다. 2003년 이후, 베델의 모습과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교회를 항상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은 저의 두 번째 집입니다. 제가 있고 싶은 곳, 좋은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만난 곳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열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운 곳입니다. 제가 CIM 중고등부에 있을 때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주시며 섬겨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귀한 선생님들과 만남은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치부 인턴으로 있을 때는 Rachel 전도사님으로부터 교회학교 사역에 대해 많은 훈련을 받으며 즐겁고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어린이 사역을 하던 때의 가장 큰 축복은 어린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보듬



주님께 내 삶을 드린 곳

1988년 초등학교 5학년에 부모님, 누나, 여동생과 함께 베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베델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질 것은 상상도 못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베델에 있었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때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기회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청소년 시기(BYM)는 저에게 중요하고, 풍성한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좋은 선생님, 리더,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만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베델은 저에게 정말로 귀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분들은 제 삶에 영향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으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청소년들을

베델안에서 청소년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더 많은 Made in Bethel 인물들을 기대하며 지금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 합니다.

오시던 선생님들과의 동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실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축복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아름다워지는 귀한 섬김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베델에서의 시간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사역의 현장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베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늘 인도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수민 전도사

을 보게 하셨으며,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던 제 기억을 되새기며 그때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처럼 베델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용되기를 소원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현장에서 사역자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사역자로 섬기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 현장의 뒤에서 기도로 부모님들의 섬김이 제가 BYM에서 섬길 수 있었던 큰 힘이였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델에서 함께 자란 Helen과 결혼하여 지금까지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섬길 수 있음도 제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제 아내는 영어 교회(BGC) 자매들과 함께 섬기며, BYM 교사로 헌신하여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며 섬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어 교회(BGC)에서 Justin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에 기초한 사역의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는, 다음 세대의 성장을 기대하



며 계속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Dan Nam 목사

칭찬합니다(1)

칭찬은 기쁨의 '마중물'

예배를 책임지는 '좌청룡 우백호'!

코람데오 셀식구들, 칭찬합니다! 주일 아침 11시, 아이 둘을 유아부, 유치부에 넣고 허겁지겁 본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 현장 예배를 더욱 설렘이었습니다. 멀리서 예배 인도 찬양이 들려오니 발걸음이 더 분주해집니다. 오늘 예배는 2층 뒷좌석에 배정됐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니 예배 진행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교 강단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찬양팀이, 다른 한쪽에는 예배 진행 스태프들이 바지런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셀목자인 안성희 집사님께서 왼쪽 앞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배 진행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예배순서에 따라 동선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니, 최근 우리 셀에 새로 오신 윤종수 성도님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예배 진행을 돕고 계셨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제 다가가 아니었습니다. 셀목자의 배우자인 임정연 집사님께서 키보드 반주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와우! 놀라웠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셀 식구들의 숨은 손길로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달려오는 내 모습과 달리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오롯이 예배를 위해 올려드리는 셀 식구들의 섬김에서 진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베델의 예배를 섬기며 봉사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셀 식구들, 큰 소리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정말 멋져요!!

김은정 집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일

저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팀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자신의 시간도 푹 떼어내 봉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늘 바쁘신 우리 팀장님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들러서 따뜻한 미소로 항상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 현장 예배 오픈 이후, 정말 많은 선생님께서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

니다. 예정에 없던 일도 많은 선생님께서 선뜻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습이 항상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VBS를 마치고 정리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선생님께서 선뜻 주일 예배 후에 남아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벽히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유치부 선생님들은 정리의 여왕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동역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만남이 저에게는 정말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장지혜 집사



당신을
칭찬합니다!

베델 선교/코스타리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



선교지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중에 베델교회와 연락이 닿아 백신을 맞고 사명을 품고 돌아갑니다. 흔쾌히 선교관을 내어주시고 이동도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코스타리카란 찬란한 아침이 있는 주님의 사역이 있는 곳으로 무척 행복한 곳입니다. 초기에는 선

교사들이 교회를 지어 주다 보니 현지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며, 문제들은 현지 목사님들과 나누며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 내용으로는 지도자 훈련(60%), 봉사 구제

(20%), 교회 개척 건축 지원(20%)이며 선교지 지역 배분은 도시, 인디오 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침대는 중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며 누워 있던 '병상 침대'입니다. 우리가 건

강할 때, 거둬난 인생을 살도록 헌신할 수 있다면,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상호 선교사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님께서 6월 12일 헵시바 새벽 기도 예배에서 선교 보고를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1. 4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우기에
힘준한 길로 다니는 사역자들의 안전
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월요 목회자 모임과 매달 3일간 진행되는
인디오 훈련 진행자와 훈련자 모두 주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서찬석 목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차은하, 이사무엘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교회학교 미디어 리셋 캠프

지역광고



우리 자녀 지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미디어 리셋 캠프'가 개최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4주간의 캠프가 진행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formed"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화, 게임, 음악 등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이 틀에 똑같이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다스릴 줄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특별한 캠프에 베밀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 ▶ 신청: 8월 15일(주일)까지, bkc.org 온라인 등록
- ▶ 대상/회비: 4-8학년(현재 학년), \$100
- ▶ 인원 제한: 50명(인터뷰 후 결정)
- ▶ 기간: 9월 26일(주일)-10월 24일(주일)
- ▶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3시
- ▶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예배 봉사자

강단꽃(8월) | 8/15: 김유민, 윤주원, 조현지, 최하자 | 8/22: 박복희, 양석주, 정선경, 최하자 | 8/29: 정선경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BYM 중등부 여름 수련회



어른들조차 힘든 시간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믿음을 붙잡고 아침 묵상 모임을 갖고, 금요일마다 함께 운동하며 제자훈련을 받으며 잘 견뎌 왔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 감사하게도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올해 여름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고독, 메마름, 소망 없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영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학생들도 '광야'에서 고생해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내한 후 마지막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아와 꿈을 내려놓고, 자녀들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BYM 중등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기도도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기간: 8월 27일(금)-8월 28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 장소/회비: 비전채플, \$60
- ▶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천승현 집사 (512)947-7291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헬시바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2021 베델 심령부흥성회** 새로운 계절과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각자의 떨려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방향 감각을 불들고자 "I am put here!"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심령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일시: 9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9월 11일(토) 오전 6시와 저녁 7시,

9월 12일(주일) 1-4부 예배

*11일(토) 오전에는 셀러자 수양회가 열립니다

◆ **수요특별기획 "예수아"** 돌아오는 수요일(18일)에 방영되는 8회에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삶과 말씀을 찬양에 담아 방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양육반/베델 제자반 모집** 가을학기 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구분: 양육반(제자훈련 2단계, 16주), 제자반(제자훈련 3단계, 30주)

신청 기간/방법: 8월 9일(월)~8월 29일(주일),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앞 부스

*모든 훈련은 대면(In-Person)을 원칙으로 하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양육반,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바이블 클럽 모집**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바이블 클럽을 모집합니다. 하루에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카톡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구분: - 30일 사복음서 읽기: 하루에 4장씩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대해

한 달간 읽는 플랜

- 16주 성경 1독: 하루에 약 1시간씩 16주간 성경 1독을 하는 플랜

신청 기간/방법: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life@bkc.org

◆ **55차 전도폭발 모집** "전도의 태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 8월 31일(화)~12월 7일(화)(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훈련 방법/등록 방법: 현장과 Zoom,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앞 부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Beyond the Blue: 사별 가정 회복(Grief Share) 모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와 슬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치유되며 소망을 갖게 되는 회복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정/시간/장소: 9월 3일~12월 3일(총 13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조이채를

문의: 한상섭 장로 (949)735-8472,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http://bkc.org/connect/family/ministries/) 또는 본당 앞 부스

*저녁 제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베델 BAM 훈련자 모집** 베델 BAM 훈련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1단계(BAM 이해와 삶 과정), 2단계(리더를 위한 북클럽 과정), 3단계(프로젝트 및 모의창업 과정)로 훈련생을 모집하며, 12주 동안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소그룹 모임 활동을 갖습니다.

일시/등록 방법: 9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 홈페이지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베델 선교: 히즈윌 봉사자 모집** 선교지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의 자녀를 섬기고 교육하기 위한 베델 히즈윌 스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예살 홈커밍데이 집회**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예살 홈커밍데이 집회가 열립니다. 예살 청년 및 예살 출신의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정/장소: 8월 22일(주일) 오후 2시, 4부(청년) 예배, 본당

강사: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 교회 담임)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예살 필라델피아 선교 보고** 필라델피아 노스 센트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태후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예살 온라인 선교를 통해 많은 금액이 후원되었습니다. 이 헌금은 이태후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는 캠프에서 여섯 살 때부터 함께 했던 Brian과 Ayasha의 대학 진학 장학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베델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학교 미디어 리셋 캠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배우고 훈련받는 캠프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7면 참조)

문의: 안지호 팀장 (949)241-1807

◆ **BYM 중등부 여름 수련회**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면 참조)

기간/장소/회비: 8월 27일(금)~8월 28일(토), 교회 비전채널, \$60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ethel Classical Academy 자원 및 유급 직원 모집** 오는 8월 23일에 개교하는 베델 클래식얼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자 및 유급 파트타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앞 BCA 부스나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수민 전도사 (949)303-3535

◆ **위로해주세요**

- 故 정규진 집사님(정승우 집사의 부친, 이경하 집사의 시부)께서

8월 9일(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이종화 집사님께서 8월 12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기쁨으로



리셋

"Do you have such a friend?"

(Philippians 2:19–30)

- 1.** In the wake of a sudden division, Paul exhorts Philippian church to follow the attitude of Jesus. Today passage refers to two people as specific examples. Who are they?

Apply to Life



- 2.** Find commonalities between these two friends. Share what lesson we have learned.

1) _____ (vv.22, 25, Ref: 1Thes 3:2-3, 2Tim 4:9, 13)

2) _____ (vv.20, 26, Ref: Prov 25:25)

3) _____ (vv.21, 30)

- 3.** Do you have a friend who makes you think of Jesus? With thankful hearts, as you think about our faithful friend Jesus who is with us, share your prayer requests.